

추사 유물 110점 보유...연중 상시 전시

제주 추사관

데스크승인 2014.01.23 강민성 기자 | kangms@jejunews.com



추사유배지 앞에 위치한 제주 추사관은 추사 김정희의 작품과 탁본 등을 전시한 공간으로 세한도에 나오는 둥근 창문이 있는 사각형 집을 모델로 삼았다.

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75억원을 들여 건립했으며 규모는 지하 2층, 지상 1층, 연면적 1193㎡로 추사기념홀을 비롯해 전시실, 교육실, 수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.

추사 관련 유물은 1월 현재 보물 26점과 서간문 59점, 영인본 10점, 탁본 15점 등 총 110점을 보유하고 있다.

특히 2006년 부국문화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증해 국립제주박물관에 임시 보관했던 '예산 김
정희종가유물'도 2010년 추사관 개관에 맞춰 이전, 현재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.

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추사관은 유물 65점 내외를 상시 전시하고 있으며 1년에 한 차례씩
기획전을 열고 있다.

강민성 기자 kangms@jejunews.com

© 제주신보(<http://www.jejunews.com>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